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분황사 석탑

서영수

사각 삼층 분황사 석탑
천년왕조가 앉아 있다

모전석탑 머리 위에
화강암 연꽃 받쳐 이고
원왕생 가는 문을
가슴으로 여는 현장

네 마리 사자늪이 으르릉 으르릉
달아나는 세월을 물고 있다.

선덕여왕 걸어서 오른
구층탑 옛 그림자
바람이 누운 기단 위에
풍경으로 우는 오늘

절기의 숨소리 나풀거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밤과 낮이 교미하는 번뇌의 골짜기
안으로 안으로 궁궐어 요동치는 옥계석 처마 밑에
네 쌍의 금강역사 이글이는 눈빛
억겁의 산하 햇살을 물고 있다

너와 나 부르는 자리에 역사책을 펴면
시간은 향수처럼
지나고 나면 그리워
국보 30호 패찰이 반짝인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서영수 시인은...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낮달〉, 〈동전시조〉 등이 있다.

‘자비나눔·전통문화’ 어울림 연등회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어떻게 진행되나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자비나눔과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7일 서울시청 앞 광장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축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봉축행사에서는 무엇보다 자비나눔 행사가 눈에 띈다. 오는 28일 부처님오신날 범요식에는 각 사찰마다 소외계층을 초청해 함께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며, 환우돕기 한마당과 자비나눔 실천을 위한 3천배 철야정진도 이어진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은 19일에, 전통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은 20일에 종로와 동국대 일대에서 열린다. 외국인 등 만들기 대회는 20일에 각각 개최된다.

거리를 장엄하게 수놓을 이번 연등행렬에서 눈에 띄어야 할 것은 선두 합창단의 행렬 등. 이 행렬들은 수박등, 팔모등, 초롱 등 전통등으로 채워진다. 특히 초롱등은 실전보다 최근 봉축위원회가 복원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또, 행렬을 마치고 조계사에서 탐돌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전통적인 회향 의례를 되살릴 계획이다.

연등회에 참가할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 3만 명에 대한 서비스도 확충된다. 탐골공

소외계층 초청 등 자비행 붓물

전통등 복원...거리행렬 선보여

문화마당 일본·부탄불교 '첫선'

원에 외국인 관람존을 만들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연등축제에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에서 모객한 관광객 500명이 참가해 전통 등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등을 진행한다.

20일 조계사 앞에서 열리는 불교문화마당에는 일본과 부탄불교 부스가 신설된다. 또한 이슬람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불교 도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는 소수민족



지난해 열린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서 어린이들이 장엄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에는 실컷등, 초롱등이 복원돼 행렬을 수놓을 전망이다.

춤추는 대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첫 해를 맞아 열리는 연등회인만큼 이에 대한 홍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봉축위 집행위원장 영담스님은 "올해 연등회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7개국 외국어 리플렛 제작, 버스, 지하철 광고 설치 등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올해에는 홍보에 주력하고 내년부터 전통등 개발 등 다양한 복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특히 호기심이 등 고려 연등회에서 시행되다 실현된 놀이문화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을 맞아 빈번해질 정치인들의 봉축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타당한가

총무원 사회부·결사추진본부 '공론의 장'

환경단체 "줄속 처리 검토해야"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조계종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무원 사회부와 자성교과신결사추진본부는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 1차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윤주옥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최화연 지리산 생명연대 사무처장,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정웅기 불교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 정선화 환경부 자연자원과 과장 등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구례군 관계자, 화엄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속화 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관련 시민단체는 줄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가했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소외계층의 지리산 관광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례군을 비롯한 지자체 대표들은 "케이블카 설치의 환경을 보호하고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일이다. 또한 자연을 복원시키는 일이며 홍보 기능을 통해 지역민들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며 논의를 모았다.

이를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은 "내장산 케이블카 도착 지역은 풀 한포기 나지 않을 정도의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하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말을 믿어도 되나? 이 말대로만 하자. 지리산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 말을 믿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해도 괜찮다"는 말로 중도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는 화엄사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전원 사퇴의사를 밝힌 조계종 사회부 환경위원은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 자리 간담회가 됐다. 조계종은 5월 16일 경 2차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공론의 장을 개최하고 6월 중순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정혜숙 기자

"남북 당국 냉정과 자제 필요"

조계종총무원, 남북관계 악화 우려 성명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군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남북 당국의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남북갈등과 긴장조로 인한 우발적 사고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남북 당국 모두 서로

를 자극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어 "남과 북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닌 공존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갈등과 긴장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각종 법령 입법예고

원로 장례, 승려 분한신고 등

조계종 원로와 중진스님에 대한 장례 기준과 절차가 명확화된다. 또, 지난해 승려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 제적된 스님들을 위한 구제 장치도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최근 '종단 장례에 관한 령' 제정안과 '승려분한신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종단 장례에 관한 령'은 종단장을 비롯해 원로회의장, 총림장, 교구본사장 등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례에 대한 주

체와 규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종단장은 총무원에서 주관하며, 전현직 중진스님과 현직 원로회의장, 현직 총무원장은 7일장 이내로 전직 원로회의장과 전직 총무원장은 5일장으로 장례가 진행된다.

'승려분한신고 시행령'은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제적된 스님의 승적 회복 신청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종단 장례에 관한 령'은 15일까지, '승려분한신고 시행령'은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2556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2012 빛고을 선교율禪敎律 대법회

큰스님들이 전하는 깨달음과 행복의 메시지

불기 2556(2012)년 5월 8일, 15일, 22일(화)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3층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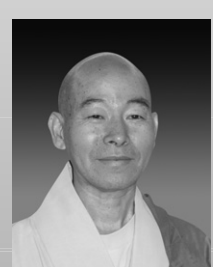
주최 | 호남지역교구본사협의회(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송광사, 선운사)
주관 | 광주불교승보회, (사)광주전남불교신도회, 광주전남포교사단
후원 |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법보신문, 광주불교방송,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불교TV
대상 | 관심있는 모든 분 (동참금 무료)
문의처 | 무등산 증심사 ☎226-0108



5월 8일(화) 오후 7시
현응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前해인사 주지
敎, 부처님 가르침에서 배우는 행복



5월 15일(화) 오후 7시
혜국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禪, 수행으로 행복하고 열린 삶



5월 22일(화) 오후 7시
지현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律, 계율에서 배우는 인생의 행복